

광주발전 '4인 4색 공약' 민심 잡기

민주 광주시당, 대선 정책공약 토론회

각계 인사 참여해 검증하고 실천 약속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광주지역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18대 대선 광주발전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문재인 후보 측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 손학규 후보 측 주대환 경제민주화정책위원, 김두관 후보 측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세균 후보 측 김성주 국회의원이 나서 각 후보들의 광주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은 '활력 광주-역동 전남'을 위한 문재인 정책구상을 통해 광주 상품거래소 설치,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수도 육성, 자동차·광산업·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의 나폴리 성장 등을 제시했다.

손 후보 측은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예술과 인권·평화 중심지로 조성하고,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서울대-전남대 혁신네트워크 추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국제문화예술 허브도시 발전과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광주가 동아시아 민주화 메카, 문화교류의 허브로서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며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광주-목포 간 KTX 조기 준공, 목포-보성 전철복선화 추진 등 호남 철도망의 다양화와 지방의료체계 확충, 광주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전초기지 건설 등의 공약을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목표 아래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광주 인권중심도시 조성, 광주전·용봉천 생태복원 사업,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센터 설치, 서남권 원자력안전화 설치, 2015하계U대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홍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박남인 광주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강기정 최고위원은 인사발령을 통해 "광주발전 공약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

■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광주 발전 공약

후보자	주요공약
문재인	• 광주 상품거래소 추진 • 광주친환경 수도 육성 • 광주-전남 관광산업 연계 한국의 나폴리로 성장 • 무안공항 여객 물류-해양 복합운송 중심 공항 육성
손학규	• 서울대-전남대 혁신네트워크 추진 • 호남고속철도 총북-목포간 조기 준공 • 광주-무안공항-목포-평안간 신성장 산업 육성 • 광융합 의료산업 등 광융합 산업 확대
김두관	• 광주-목포간 KTX 조기개통 • 광주-순천 전철 복선화 조기 추진 • 광주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전초기지 육성 • 지방의료체계 확충
정세균	• 도심 공동화 대응 도심재생 추진 • 광주전 및 용봉천 생태 복원 사업 •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센터 설치 • 탄소 중립 친환경수도 건설

미 있는 일이며, 5년 뒤 10년 뒤 광주를 설계하고 실천을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광주시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지역발전 대선공약 발굴"

새누리당 유수택 광주시당위원장은 23일 "지역발전 파급 효과가 큰 대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중앙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 활동이 중심에 외부 인사 위주의 7~9명이 참여하는 '광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시민행복추진본부'를 구성해 광주행복마을 프로그램 실천할 것"이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 클린디젤자동차부품센터 구축,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선거인단 모집 '탄력'

55만명 넘어서 ... 이해찬 대표 "200만명 기대"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5시 현재 55만 5602명이 선거인단에 등록했다.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대의원·권리당원 등 20만3000명을 합치면 현재까지 모두 77만860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민주당 경선은 당원과 비당원 구분없이 선거인단에 신청하면 신청자 모두 1인1표를 행사하고 이를 순회경선지역별로 합산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선거인단 등록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접수 초기엔 하루 평균 2만명이 등록해 지난 1·15 전당대회 때보다 선거인단 등록자가 적어 흥행 참패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런던올림픽이 끝난 지난 13일 이후 평균적으로 매일 5만명, 주말 2만명 수준으로 등록자가 증가했다. 이번 주 들어서도 20일 6만5000명, 21일 6만9000명, 22일 5

만명 등 5만~6만명대 선거인단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런던올림픽이 폐막하고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지나가는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확정된 이후 국민이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25일 제주에서 첫 경선이 시작되면 선거인단 등록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은 다음달 4일까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추세라면 150만명을 넘어 200만명까지도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보은하는 마음으로 도정 전념"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도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중단하며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당 안팎의 조직도 없이 뒤늦게 경선에 나섰지만 도민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민주당 경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며 말했다.

또 "정권 교체라는 열망과 함께 민

주당의 위기를 격정하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에 서조차 지역주의와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잦은 모비일선거로 당원들의 권리는 없어지고 당내 경선보다는 밖을 안팎의 조직도 없이 뒤늦게 경선에

나섰지만 민주당 경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며 말했다.

도정과 관련한 "F1국제자동차경주, 국제농업박람회, 순천만정원박람

회 등 국제행사 및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선 사퇴 이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도민과 국민께서 가장 중요한 후보를 지혜롭게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진실된 것은 계절 뿐이로구나



박재승 변호사와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등 범야권 원로재야인사들이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2년 대선 승리로 희망 2013을 성취하자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나와 판 키워라"

범야권 원로들 출마 압박
安 측근 "국민 의견 듣는 중"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원로 등으로 구성된 '희망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2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를 압박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가진 뒤 낸 성명에서 "우리는 안

원장에게 공식 출마선언을 서두르라고 다그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제는 그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실속 야권 단일후보가 안 되더라도 '안철수 현상'의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민주세력의 공동 승리에 확실한 공헌을 할 책임이 그

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언 이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고 동행집단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을 활발히 수용하며, 다른 진보개혁세력과의 협력 방안을 대해 그 또한 착실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탁회의는 '안철수 현상'에 "어느 순간부터 안 원장에 대해 국민 사이에 많은 기대가 풀려왔다"며 "안철수 현상"으로 지칭되는 이 흐름은 그 지속성과 열기로 보아 정치적 실체를 지녔음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백낙청 교수는 "안 원장이 이제 와

서 '나는 도저히 자신 없으니 물러서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자기가 단일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일단 나와서 판을 키워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맞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사회 원로들의 말씀도 경청하겠다"며 "백 교수도 만났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안 원장은 삶의 현장에서 절절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 (라카룸,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 (락카룸,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특이사항 | 감정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